



국가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김 신 복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과 '그 사람에 체화된 지식'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아울러 변화 주기가 빨라지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는 곳으로 국제 자본이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확산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며, 대학교육은 지식의 창출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I. 대학교육의 경쟁력 약화와 그 요인

그간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며, 고등교육 취학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2002년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 경쟁력 연감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41위(2001년 47위)로 발표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 있듯이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편이며, 대학교육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경제적 인력 수급 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인적자원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 저하를 들 수 있다. 우수 인재가 법학 또는 의학 등 특정학과에, 또한 지방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인력 수급에서도 나타나 대학원 졸업 수준의 고급 인력의 경우 정보통신 등 첨단 분야 석·박사 고급 인력은 부족한 반면에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박사급 인력은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간판 위주의 대학 서열화, 대학이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오며 따라 비교 우위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 그리고 능력이나 실력보다 학력 위주로 고용하는 사회적 관행도 대학교육의 경

“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출은 대학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학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는 한편,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

쟁력을 약화시켜 온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또 다른 요인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룩하였으나 교육 여건은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의 수는 1970년 71개교로부터 2002년 193개교로 약 2.7배 증가하였고, 학생 수는 1970년 146,414명에서 2002년 1,707,350명(대학원생 포함)으로 약 11.7배 증가하였으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18.8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29.8명으로 30년 동안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대학 재정의 학생 부담 의존 비율이 운영 수입의 69.4%(2000년)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3%인데 비해 고등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9%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15~30%에 달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현실이다.

Ⅱ.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출은 대학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학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는 한편,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통적인 의미의 학령 인구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과정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 자체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거나 다른 대학과 구별되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성화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대학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대학교육의 내용과 대학 졸업생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심지어 세칭 일류대학의 졸업생들조차 그들이 받은 대학교육에 대한 고용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대학교육이 전적으로 직업 생활의 준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구조, 산업구조 등의 변

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회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교육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지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있을 때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교육 재원 규모를 확충하고 특히 정부 예산 중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과 인적자원개발 경쟁을 벌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경쟁력 있는 부문을 선택하여 가용 자원과 정책적 노력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육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예를 들면 우수 인재의 균형 있는 육성을 위하여 기초학문 분야 육성·지원 사업에 연 1,32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시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3학년도부터 3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 수준의 우수 대학원 유치 등 국제화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될 산업교육진흥법에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회계, 학교기업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지원과 관심도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체도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 연구비 및 장학금의 지원, 시설·설비에 대한 투자 등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학벌보다는 능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공동 노력을 통해 대학교육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대학에서 양성된 실력 있는 인재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김신복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피츠버그대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간사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발전기획론』(공저), 『교육정책론』(공저), 『발전행정론』(공저) 외 다수가 있다.